

보도 시점 2026.1.15.(목) 10:00
(2026.1.15.(목) 석간)

배포 2026.1.14.(수) 16:00

중앙전파관리소, 산림 보호를 위한 비상 무선통신 협력 체계 이끈다 !

- 산불·산사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강화를 위한 산림청, 지자체 등 산림관리기관 간 비상 무선통신 모의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는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비상 무선통신 체계 확보를 위해 1월 15일(목) 오전 비상 무선통신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비상 무선통신 모의훈련** : 산불 등으로 산림 보호용 초단파(VHF) 고정무선국이 소실(파괴)된 경우, 인접한 동일 용도(산림 보호)의 다른 기관 고정무선국을 사용하여 통신망 유지

계룡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1차 훈련의 후속으로 산림청(본청, 중부지방산림청 등), 공주시청, 국립공원공단(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등 산림관리기관과 중앙전파관리소(본소) 및 대전전파관리소가 참여하였으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 초단파(VHF) 무선통신의 통신 연결 상태, 현장 전달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 산림 보호 비상 무선통신 1차 모의훈련

- 일자·장소 : 2025년 9월 24일(수), 태백산국립공원 일원
- 참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산림청(본청,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청,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무선통신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통신 환경을 점검·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통신 연계를 총괄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산림청·지자체·국립공원공단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상 무선통신 운용 능력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이나 통신 장애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산림재난 상황에서 무선통신은 현장 지휘와 인명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이며, 이번 훈련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와 통신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이 없는 비상통신 환경 확보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1·2차 모의훈련 성과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홍보하여 기관 간 비상 무선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앙전 파관리소 전 파관리과	책임자	과장	김용미 (02-3400-2201)
		담당자	사무관	허경일 (02-3400-2210)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